법해 스님과 양촌 권근의 진관사수륙사조성기

법해 스님(맨 오른쪽), 도운 스님(가운데), 이경자 여사(법해 스님 맞은편).

도운 스님(오른쪽)이 수륙사 터에서 수륙사 내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관사(津寬寺)는 서울 은평구 진관길 73 북한산 응봉(鷹峰) 밑자락에 위치한다. 마치 한 마리 매가 응봉(鷹峰)에 날아와 날개로 감싸듯 북한산은 병풍처럼 두루고 있다. 고려 제8대 현종(顯宗)이 1011년(顯宗 2년)에 진관대사(津寬大師)를 위해 창건한 도량이다. 미국 대통령 오마바 등 국빈을 비롯하여 사찰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리차드 기어, 사우디 왕자 등 귀빈, 산사 음식을 배우러 온 백악관 쉐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진관사를 다녀갔다. 양촌 권근선생이 양촌집에 진관사수륙사조성기를 남겼기에 권행완 편집국장과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부인이신 문학박사 이경숙 여사와 함께 5월 25일 진관사 주지 법해(法海) 스님을 만나러 진관사를 방문했다. 도운 스님은 사찰 입구에서 새로 신축한 건물의 흙다움, 물다움, 아름다움으로 이름 지은 강당에 대한 설명과 빛다움실의 신비한 빛의 체험을 하고 싱싱한 상추와 된장과 고추장 등으로 푸짐한 공양을 함께 한 후 수륙사 터를 둘러보고 회주 스님의 덕담과 차 한잔으로 마음이 잔잔해지자 법해 스님은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라고 하며 환한 미소로 반겨 주셨다.

법해 스님은 이경자 여사께서 지난번 안동권씨 시조 추향제 때 권혁홍 회장이 초헌관으로 봉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손주들도 참석한 앨범을 보여드리자 바로 이런 게 필요하다. 얼마나 멋있나. '씨'는 가문의 삶의 방식이자 정신적 가치이다. 속세에서 나는 양동이씨이다. 양반은 한밤중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자랐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나를 키우는 교육이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편집국장(이하 국장) : 양촌 선생의 양촌집에는 진관사수륙사에 대한 조성기가 있는데 수륙사라는게 뭐하는 곳이었나요.

법해 스님(이하 법해) : 양촌 선생이 진관사가 최고의 가람이 되도록 명분을 준 것이다. 조선의 현충원이 진관사였다. 당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동의 시기에 싸우다 죽은 무사들과 고려인의 충혼을 달래고, 두려움을 제사를 지내 해소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불교 최대의 행사가 수륙재였다. 수륙사 조성기로 인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했고,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 지혜를 나누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는 안정적인 기틀을 제공한 셈이다. 지금도 진관사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천도재인 수륙재를 지낸다. 국가무형문화재 재126호인 국행수륙재이다. 수륙재는 단박에 3생의 나쁜 습관을 다 녹인다. 수륙재는 평등하게 대등하게 베푼다. 수륙재를 하도록 명분을 주신 분이 안동권씨 양촌 권근 선생이다.

국장 : 수륙재가 뭔지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해 : 마음먹기에 달렸다. 꿈과 원력도 마음먹은 대로 풀린다. 마음이 있으면 산 것이고 그것이 삶이며, 마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1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산다. 그게 갑(甲)이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관계는 인(仁)이다. 또 관계를 잘 맺으려면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성(誠)은 말(言)을 이루는(成)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나. 지성을 다하는 그 불심(佛心)은 때가 없는(無垢) 티 없는 마음이다. 그게 정토(淨土)이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경(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공경은 마음을 밑으로 밑으로 내려놓는 하심(下心)에서 출발한다. 이때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가 되는 것이다.

국장 :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뭇 사람들은 다 중생의 길로 가는데 왜 그런지요.

법해 : 인간이 가는 길에는 두 갈래가 있다. 그 뿌리에는 선근(善根)도 있고 악근(惡根)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악근은 탐욕과 집착과 분노의 길로 인도한다. 중생들이 가는 길이다. 이 길은 고(苦)의 길이다. 외롭고 괴롭고 무섭고 두렵다. 잡생각으로 번민한다. 70에 삶의 성적표 나온다. 70에 인내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평생 몸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이 완전히 노출되는 시기이다. 본전이 다 떨어져 포장할 힘이 없는 격이다. 70이 이러는데 80, 90, 100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외로운 길, 괴로운 길, 무섭고 두려운 길로 가는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수륙재이다. 이 길은 집착에서 벗어난 무집착의 길이다. 흐뭇하다. 자랑스럽다. 행복하다. 가득하다. 알찬 한마음의 길이다. 부처님 한 생각으로 꿈을 가꾸는 길이다.

국장 : 스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은 양촌 선생의 입학도설에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라는 그림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늘에서 인간에게 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인의 길이고,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고 욕심대로 하다 욕망의 늪에 빠지는 짐승의 길이 있다고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한 군자는 하늘이 준 인의예지를 잘 실천하다 순간 욕심대로 하다 아차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고 안내합니다. 유학에서는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법해 : 양촌 선생의 글을 읽어보니 꾸미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썼더라.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마음보는 공부가 곧 명상이다. 연못 속에 구름이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구름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그 연습을 평생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

국장 : 수륙재는 언제 열리는지요.

법해 : 10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태종의 죽은 아들 성녕대군을 위한 수륙재도 여기서 지냈고 원경왕후 제사도 진관사에서 지냈다. 태조 때부터 수륙재를 지내다 태종 때 정례화했다. 그러니까 진관사 수륙재는 조선을 대표하는 왕실 수륙재로서 600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열 수 있게 명분과 가치를 주신 분은 양촌 권근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양촌 선생의 양촌집 진관사수륙사조성기에는 수륙사 조성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임금의 명령을 누가 받아서 언제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마다 몇 단 몇 칸으로 지었고 대문, 행랑, 곳간 등 모두 59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일부이다.

"불설(佛說)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지은 선악에 따라 윤회(輪廻)하여 태어나는데, 부처가 능히 자비(慈悲)로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주며 허덕이는 고난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으므로, 산 사람이 만일 부처를 섬기고 중을 대접하는 일을 하여 복리로 인도하면, 죽은 귀신이 주림에서 배부르게 되고 괴로움에서 즐겁게 되어 성불(成佛)하여 영구히 윤회의 응보(應報)를 면하게 되고, 산 사람도 잘 되게 된다고 한다. 이러므로 효자(子)와 자손(孫)과 우매한 지아비나 지어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휩쓸려 다투어 부처에게 돌아가되,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여 온 세상이 물밀듯이 높이고 숭상하는데, 수륙무차평등회(水陸無遮平等會)가 더욱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홍무 정축년(태조 6, 1397) 정월 을묘일에 주상께서 내신(內臣) 이 득분(李得芬)과 사문신(沙門臣) 조선(祖禪) 등에게 명하기를, "내가 국가를 맡게 됨은 오직 조종(祖宗)들께서 적경(積慶)하신 덕이니, 조상의 덕 보답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겠고, 또 신민(臣民)이 혹은 나라 일로 죽었지만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전도(顚倒)하되 구제할 수 없음을 생각하매,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그래서 옛절에다가 수륙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祖宗)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중생(衆生)들에게도 복되게 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가서 합당한 곳을 살펴보라"하였었다. 사흘 지난 정축일에 이 득분 등이 서운관(書雲觀) 신(臣) 상 충(尙忠) 양 건(陽建) 및 사문(沙門) 지상(志祥) 등과 함께 삼각산에서 도봉산까지 둘러보고 복명하기를 '모든 절들이 진관사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하니, 이에 상(上)이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대선사(大禪師) 덕혜(德惠)와 지상 등에게 명하여 중들을 불러 모아 일을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내신(內臣) 김 사행(金師行)이 더욱 힘써 그달 경진일에 역사를 시작하였다. 2월 신묘일에 상께서 친히 임하여 보시고 3단(壇)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3월 무오일에 또한 거둥하여 보셨는데, 가을 9월에 공사가 끝났다. 3단이 모두 3칸 집인데, 중·하 두 단은 좌우에 또한 욕실(浴室)이 각각 3칸씩 있고 하단(下壇)은 좌우에 따로 조종(祖宗)들의 영실(靈室)을 각각 여덟 칸씩 설치했으며, 대문·행랑·부엌· 곳간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59 칸이라,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제도에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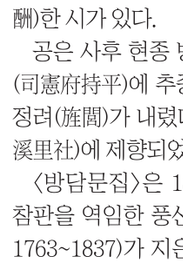
이달 24일 계유에 상이 또한 친림하여 보시고 28일 정축에 신(臣) 권근을 명소하여 그 시말을 기록해 후세에 보이도록 하였다."

진관사 법해 스님은 오늘 아침 나의 행복은 중생을 교육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에 있음을 깨달았다. 구파발에 인생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 행복의 이치,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5〉

방담문집(方潭文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방담문집〉은 인조 때의 성리학자 권강(權杠, 1567~1626)의 시문집으로 4권 2책이다.

공은 부정공파로 태사공 22세(世)이며, 자는 공거(公擧)이고 호가 방담(方潭)이다. 부친은 김산훈도(金山訓導)를 지낸 권우신(權遇臣)이다. 모친은 일직손씨(一直孫氏)로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역임한 손붕(孫鵬)의 따님이다.

공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과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1520~1588)의 문인으로 선조 22년[1589] 사마시(司馬試)로 생원이 되었다. 인조 3년[1625]에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과거에 대한 뜻을 버리고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공은 경사자집(經史子集)에 능통했으며 특히 〈맹자〉에 힘썼다. 제례(祭禮), 주역(周易), 역법(曆法)에도 밝았다.

향리(鄕里)의 교화(敎化)에 힘쓰기도 하였으며 명공대인(名公大人)과 즐겨 교유하여 상국(相國)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창수(唱酬)한 시가 있다.

공은 사후 현종 병오년[1666]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追贈)되고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가 내렸다. 안동 풍산의 운계리사(雲溪里社)에 제향되었다.

〈방담문집〉은 1835년에 간행되었다. 호조참판을 역임한 풍산인(豐山人) 류이좌(柳台佐, 1763~1837)가 지은 〈방담선생문집서문〉에 보면 〈방담문집〉 간행과정이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 "공의 6세손 상사(上舍) 권형복(權馨復) 씨가 고산 이유장·청대 권상일 등이 지은 공의 행장과 묘갈명을 가지고 번암 채제공 상공(相公)에게 묘지(墓誌)를 받고 유고(遺稿)를 수습하여 2책(二冊)으로 만들었으며 상사 공의 조카 권재동(權載東) 씨가 사림(士林)과 의논하여 판각하고 나[유이좌]에게 서문을 잘못 부탁하였다." 서문을 지은 날짜는 헌종 원년 을미년[1835] 5월 하순(下旬)이다.

제1권에는 부(賦)·사(辭)·시(詩)·소(疏)·서(書)·서(序)·제문·행장·상량문이 실려 있다.

제2권은 〈맹자서취정록(孟子書就正錄)〉이고, 제3권에는 잡저(雜著)인 〈역도설(易圖說)〉·〈역상(曆象)〉·〈제례의식(祭禮儀式)〉이 실려 있다.

제4권은 부록으로서 공을 위해 후인들이 지은 제문 및 만시를 비롯하여 문인이 묘소에 제사한 축문,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 1625~1701)이 지은 행장, 제자 등 후인이 기록한 유사(遺事),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지은 묘갈명, 현감을 지낸 이산두(李山斗, 1680~1772)가 지은 입석고사(立石告辭), 판중추부사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지은 묘지명, 류종춘(柳宗春)이 지은 운계리사 봉안문,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지은 상향축(常享祝), 풍산인 류규(柳)가 지은 묘우(廟宇)상량문, 문소인(聞韶人) 김굉(金坵)이 지은 강당기(講堂記)가 수록되어있다.

제1권의 〈감고(感古)〉 등 5편의 부(賦)는 내용이 도학(道學)에 관한 것이다. 시(詩)는 29제 30수로 분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남에게 지어주거나, 화답하거나, 차운하거나, 망자(亡者)를 애도한 것들이어서 공이 평소 즐겨 시를 짓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書)는 주로 안부를 묻는 것들이지만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여송상빈권명서(與宋商賓權銘書)〉 같은 것은 심성(心性)의 설(說)에 대해 논하였다. 이로써 공이 도학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권의 〈맹자서취정록〉은 〈맹자〉 책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해설한 것이다. 제2권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제3권의 잡저와 함께 본 문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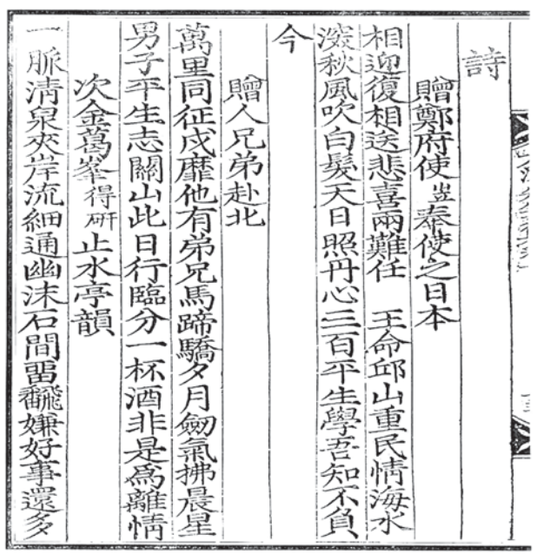
〈역도설〉은 하도(河圖)·낙서(洛書)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주역〉으로 완성되었는지의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제례의식〉은 시제(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에 대해 각각의 절차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다.

다음은 제1권의 시(詩) 중 첫 번째로서, 사신의 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가는 부사(府使) 정립(鄭岦, 1574~1629)에게 드린다는 것이다.

相迎復相送(상영부상송)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드리는 일이
悲喜兩難任(비희양난임)
슬픔과 기쁨 둘 다 감당키 어렵네
王命邱山重(왕명구산중)
임금 명령은 구릉과 산처럼 무겁고
民情海水滇(민정해수심)
백성의 마음은 바닷물만큼 깊도다
秋風吹白髮(추풍취백발)
가을바람 불어 허연 머리 휘날리고
天日照丹心(천일조단심)
하늘의 태양 충성스런 마음 비추네
三百平生學(삼백평생학)
시경 삼백 편 평생토록 공부했으니
吾知不負今(오지불부금)
이번 임무 잘하리라 내 알고 있네

제목의 정립(鄭岦)은 문과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 등을 거쳐, 도승지·공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1624년 8월에 회답사(回答使)로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3월에 부산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이 시의 7번 행은 공자가 아들 리(鯉)에게 '시(詩)를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한 고사의 뜻을 취한 것이다.


詩
贈鄭府使岦奉使之日本
相迎復相送悲喜兩難任 王命邱山重民情海水
滇秋風吹白髮天日照丹心三百平生學吾知不負
今
贈人兄弟赴北
萬里同征戍靡他有弟兄馬蹄驕夕月劒氣拂晨星
男子平生志關山此日行臨分一杯酒非是爲離情
次金萬峯得研止水亭韻
一脈淸泉來岸流細通幽沫石間留攜嫌好事還多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천이 없었으리, 주천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世, 강원한문연구소

술꾼들은 언제나 진나라 유령(劉伶)의 일화를 안주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그는 '주덕송(酒德頌)'을 지었는데, 늘 술병을 가지고 다니며 하인에게 삽을 메고 뒤따르게 했다. 술을 마시다 죽으면 바로 땅에 묻어 달라는 대목에 선 감탄하고, 만물을 장강이나 한수에 떠 있는 부평초같이 여기는 담대함에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

주덕송이 싫증 나면 이백으로 옮겨간다. 술에 관한 시를 찾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장진주(將進酒)'의 '군불견(君不見)'을 입에 올린 다음에 술을 한잔 들이킨다. "그대 모르는가,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로 쏟아져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음을" 다시 이어진다.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땅에 주천이 없었으리"는 애송하는 구절이 되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주천(酒泉)'의 유래를 알려주는 조형물이 산 밑에 보인다. 주천은 예전부터 유명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주천석(酒泉石)'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동역사'는 "주암(酒巖)이 있는데, 술이 그 아래에서 나온다"라 적고 주천현의 남쪽 길가에 바위가 있는데, 모양이 마치 반쯤 부서진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도록 만든 그릇 같다고 추가로 설명한다.

문헌에 기록된 것 이외에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술샘은 양반이 오면 약주가 나오고 천민이 오면 막걸리가 나왔다고 한다.

한 번은 천민이 양반인 척하면서 의관을 정제하고 갔는데 여전히 막걸리가 나왔다. 화가 나서 샘터를 부순 이후에는 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다양하게 변주되어 전해지는 '술샘'을 시인들은 시로 노래했다.

하나를 남긴 것에 어찌 뜻이 없겠나 / 復留一片豈無意
술을 경계하느라 관청 길가에 남겨 두었네 / 天戒衆飮官途邊
세상 사람 신령한 유물의 뜻 알지 못해 / 世人不曉靈眞跡
목마를 땐 술 생각에 침만 흘릴 뿐이네 / 渴喉但覺流饞涎

퇴계 이황의 시 중 일부분이다. 근엄한 성리학자의 풍모를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 주천석이 깨진 이유는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인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술 생각에 침만 흘릴 뿐이라고 질책한다.

조형물 오른쪽을 보니 돌계단이 강 쪽으로 내려간다. 강가 바위에 '주천(酒泉)'이 새겨져 있고, 바위틈 아래에 물이 고여 있다. 선인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시를 지은 걸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 공터 의자에 앉아 주천강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안흥에서 내려오는 강이 활처럼 휘면서 마을을 감싸고 돈다.

강물은 그냥 흐른 것이 아니다. 흙을 안쪽에 수북이 쌓아 넓은 벌판을 만들어주었다. 이곳은 고구려의 주연현(酒淵縣)이었는데 신라가 차지하고 주천현으로 고쳤다. 따로 학성(鶴城)으로 부르기도 했다. 신라 때 영월군의 관할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원주의 속현이 되었고, 1905년에 영월군에 귀속되었다. 주천의 역사는 문헌뿐만 아니라 돌에도 새겨져 있다. 조형물 옆에 선정비가 즐비하게 서서 주천 고을의 유구한 역사를 몸으로 보여 준다.

선정비 뒤 등산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니 빙허루(憑虛樓)가 우뚝 섰다. 누대 아래로 주천강이 흐르고 건너편으로 건물들이 빼곡하다.

주천을 대표하는 누정은 빙허루와 청허루다. 다시 다리를 건너 '술샘박물관'으로 향한다. 박물관 옆 '청허루'에 오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청허루가 주천현 객관 서쪽에 있으며 석벽이 깎아지른 듯하고, 아래에 맑은 못이 있다고 적었다.